

중국어 ‘都’와 한국어 ‘모두/다’의 인지모형 대조 연구

申美京·劉偉*

目 录

1. 들어가는 말
2. ‘都’, ‘모두’, ‘다’의 양화 대상 차이와 특징
 - 1) ‘都’, ‘모두’, ‘다’의 양화 대상 차이
 - 2) ‘都’, ‘모두’, ‘다’의 양화 대상의 특징 분석
3. 인지 모형의 차이와 그 영향
 - 1) ‘都’, ‘모두’, ‘다’의 인지모형
 - 2) 인지모형의 영향
4. 나가는 말

1. 들어가는 말

『中韩辞典』(2000)이나 중국어 교재에서 중국어 범위부사 ‘都’는 일반적으로 ‘모두’나 ‘다’로 해석하고 있다¹⁾. 다음의 예문을 보자

- (1) a. 他们都来齐了。
b. 그들이 모두/다 왔다.
- (2) a. 老师都是中国人。

* 서울대학교 中語中文科 講師, 忠南대학교 中語中文科 招聘助教授

1) 본고는 전칭양화사로 기능하는 ‘都’만을 대상으로 하며, ‘甚至’과 ‘已經’의 의미로 사용되는 ‘都’는 논의에 포함하지 않는다. 한국어 역시 부사로 기능하는 ‘모두/다’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 명사는 논의에서 제외한다.

b. 선생님은 모두/다 중국인이다.

예문(1), (2)에서는 범위부사 ‘都’가 선행 성분 ‘他们’과 ‘老师’를 양화하고 있다. 이에 상응한 한국어 해석은 ‘모두’와 ‘다’ 둘 다 가능하다. 그렇다면 ‘都’의 대응표현으로 항상 ‘모두’와 ‘다’를 사용할 수 있을까? 전칭양화사 ‘都’의 대응 표현으로써 한국어 ‘모두’와 ‘다’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일까? 본고는 다음 예문을 통해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 (3) a. 假期里你都去哪儿玩儿了?
b. *휴가중에 너는 모두/다 어디로 놀러 갔었느냐?
- (4) a. 你家里都有什么人?
b. *너희 집에 모두/다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 (5) a. 什么都可以。
b. 아무거나 다 괜찮다.
c. ?아무거나 모두 괜찮다.
- (6) a. 无论哪儿我都愿意去
b. 어디든지 나는 다 가고 싶다.
c. ?어디든지 나는 모두 가고 싶다.

예문(3)a와 (4)a의 ‘都’는 동사 뒤에 후행하는 의문대명사인 ‘哪儿’과 ‘什么’를 전칭 양화한다. 이를 한국어 ‘모두’나 ‘다’로 번역한 (3)b와 (4)b는 어색하다. 한국어는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의문대명사를 중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즉, (3)b는 ‘휴가 중에 어디어디로 놀러 갔었느냐?’로, (4)b는 ‘너희 집에 누구누구 있느냐?’로 표현한다. 표면적으로는 같은 양화 기능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중국어의 ‘都’와 한국어의 ‘모두’와 ‘다’는 일정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문(5)와 (6)은 ‘都’가 각각 ‘都’앞에 선행하여 임의적 지시(arbitrary reference)를 나타내는 의문사 ‘什么’와 ‘哪儿’을 양화한다. 그러나 이에 대응하는 한국어로 전칭양화사 ‘다’를 사용한 (5)b와 (6)b만 성립하고, ‘모두’가 쓰인 (5)c와 (6)c는 자연스럽지 않다. 이처럼 한국어 전칭양화사 ‘모두’와 ‘다’는

'都'와 양화 기능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중국어 '都'와 한국어 '모두/다' 그리고 한국어 '모두'와 '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 차이가 있다면 그 이론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中韩辞典』(2000)과 毛海燕(2006)은 '都'는 앞에 출현하는 사람이나 사물을 양화할 뿐만 아니라 뒤에 나오는 의문대명사에 나타난 사람이나 사물도 양화할 수 있지만, 한국어 '모두/다'는 단지 앞에 출현한 사람이나 사물만을 양화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都'와 '모두/다'가 선행 성분을 양화할 때 그 대상에는 전혀 차이가 없을까? 차이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또 그 이유는 무엇인가? 위의 서술에서는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지 않는다.

한국어 '모두/다'에 대해서는 엄정호(1996)를 좀 더 참고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모두/다'는 일반적인 양화부사로서 집합적 해석^{1,2}와 분산적 해석이 다 가능하다고 한다.²⁾ 그렇다면 '모두'와 '다'는 거의 차이 없으며 자유로운 호환이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예문 (5)나 (6)과 같이 언어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이들의 양화 대상은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러한 차이가 '모두/다'를 사용함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지금까지 진행된 선행연구에서는 이에 관한 논의를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본고는 우선 '都', '모두', '다'가 사용된 말뭉치를 직접 분석하고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우선 이들이 양화하는 대상의 차이와 그 특징을 찾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나서 인지언어학에서 제시하는 '전체 인지(whole cognition)', '개체 인지(individual cognition)', '연속적 주사(sequential scanning)', '일괄적 주사(summary scanning)' 등의 서로 다른 인지모형을 이용하여 이들이 양화하는 대상이 서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해보고자 한다.

2) 집합적 해석은 양화의 작용역이 되는 대상을 하나의 단위로 취급하는 것이고, 분산적 해석은 작용역 안에 있는 여러 개체를 따로따로 취급하는 것이다. 집합적 해석1은 여러 개체를 하나의 단위로 취급하는 것이고, 집합적 해석2는 하나의 단위를 그 부분들의 구성체로 보고 양화하는 것이다.

2. ‘都’, ‘모두’, ‘다’의 양화 대상 차이와 특징

본고는 ‘都’, ‘모두’, ‘다’의 양화 대상을 비교하기 위하여 语料库在线³⁾에서 ‘都’의 예문 270개, 세종말뭉치에서 ‘모두’와 ‘다’의 예문을 각각 191, 172개를 추출하였다.⁴⁾ 이를 하나하나 비교 분석함으로써 ‘都’, ‘모두’, ‘다’의 양화대상의 차이와 그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1) ‘都’, ‘모두’, ‘다’의 양화 대상 차이

『现代汉语八百词』(2004)에 따르면, ‘都’가 전칭 양화하는 대상은 반드시 ‘都’에 선행해야 하며, 다만 의문대명사로 양화하는 대상은 ‘都’에 후행할 수 있다. 양화하는 대상은 임의적 지시의 의문대명사를 사용할 수도 있고, 접속사 ‘不论, 无论, 不管’ 등도 가능하다고 하였다. 毛海燕(2006)에 따르면, ‘모두/다’가 전칭양화사로 쓰일 때 양화하는 대상은 일반적으로 ‘모두/다’의 앞에는 출현 가능하지만 뒤에는 출현할 수 없으며, ‘모두/다’는 임의적 지시를 나타내는 의문사와 공기할 수 없다. 이에 따르면 ‘都’와 ‘모두/다’는 임의적 지시를 나타내는 의문대명사의 양화 여부를 제외하면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실은 이와 같지 않다. 본고는 말뭉치의 실제 언어 자료를 통하여 ‘都’와 ‘모두/다’의 양화대상의 차이를 밝혀보고자 한다.

‘都’의 양화대상을 분류하기 위하여 陈伟(2014)를 참고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그는 ‘都’의 양화대상을 8가지 부류로 나누었다.⁵⁾ 중한 대조의 편

3) ‘国家语委现代汉语通用平衡语料库’의 말뭉치 규모는 1억자에 이른다. www.cncorpus.org

4) 본고는 중국어 말뭉치에서 300개의 사례를 무작위로 추출한 뒤에 품사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를 제거하고 남은 270개의 예문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한국어는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하는 세종 말뭉치에서 각각 200개를 추출하였으나 마찬가지로 명사로 사용된 것은 제외된 것이다.

5) 이들은 ①명사(구)(명사, 대사, 명사구 등 포함), ②중첩식, ③每+NP, ④양화구(수량구, 所有NP, 一切NP, 这些NP 등 포함), ⑤시간의 길이를 나타내는 시간사, ⑥의문사,

리함을 위하여 본고는 ‘都’, ‘모두’, ‘다’의 양화 대상을 모두 다음과 같은 6가지로 재분류하였다. ①일반명사(구)와 병렬식⁶⁾을 포함하는 명사(구), ②每+NP 혹은 중첩식, ③수량구, 所有/一切NP, 这些NP와 같은 양화구, ④시간의 길이를 나타내는 시간사, ⑤의문사나 ‘任何’가 사용된 임의적 지시 성분⁷⁾, ⑥동사이다.⁸⁾ 말뭉치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1]과 같다.

[표1] 양화 대상 분류

분류	①명사(구)		②每+NP, 중첩	③ 양화구	④ 시간 부사	⑤ 의문사	⑥ 동사	합계
	일반명사(구)	병렬식						
都	80	84	24	78	2	2		270
	29.6%	31.1%	8.8%	28.8%	0.7%	0.7%		100%
모두	115	58		18				191
	60.2%	30.3%		9.4%				100%
다	87	18		32	5	7	23	172
	50.5%	10.4%		18.6%	2.9%	9.7%	13.3%	100%

[표1]에 따라 ‘都’, ‘모두’, ‘다’의 양화 성분을 각각 살펴보자.

첫째, 명사(구)를 양화하는 경우이다. 명사(구)는 다시 일반명사(구)와 병렬식⁹⁾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일반명사(구)는 집합명사, 대명사, 처소사, 명사구 등을 포함한다. 병렬식은 NP+NP……와 같이 2개 이상의 명사 성분이 나열되

⑦ 처소사(구), ⑧ 절(절, 개사구, 동사구 등)이다. 분류는 중국어 성분의 형식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에 대한 한국어 대응식은 본문에서 해당 논의에서 직접 제시하면서 대조한다.

- 6) 병렬식은 ‘명사, 명사’(예, 너, 나, 그 사람), ‘명사구, 명사구’(예, 마주쳤던 사람들, 지나다니던 거리들) 등을 포함한다.
- 7) 여기에서 의문사는 “谁都知道。”의 ‘谁’처럼 특정 대상이 아니라 불특정한 대상을 임의적으로 지시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8) 중첩과 每+NP를 하나로 합치고 처소사와 절은 모두 명사구에 포함시키고 동사를 새로 추가했다.
- 9) 병렬식도 일반명사구에 포함할 수 있지만, 따로 분류하여 서술하는 것은 ‘都’, ‘모두’, ‘다’와 결합하는 명사구 중에 특히 병렬식을 양화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별도로 살펴보는 것이 전체적인 고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는 형식을 의미한다. ‘都’의 전체 예문 270개 중 이에 속하는 사례가 164개로 전체의 60.7%를, ‘모두’는 전체 예문 191개 중에서 173개로 90.5%를, ‘다’는 전체 172개 중에서 105개로 60.9%를 차지한다. 다음의 예를 보자.

- (7) a. 孩子们都喜欢他。
b. 아이들이 모두 그를 좋아한다.
c. 아이들이 다 그를 좋아한다.
- (8) a. 我们都考上了大学。
b. 우리는 모두 대학에 합격했다.
c. 우리는 다 대학에 합격했다.
- (9) a. 她、爱人、孩子都在食堂就餐。
b. 엄마, 아빠, 언니 모두 행복하길 바래요.
c. 미진이, 경림이, 성희는 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예문(7)은 일반 명사구 중에서 집합명사를, (8)은 대명사를, (9)는 병렬식을 양화한 경우이다. 세 경우 모두 ‘都’, ‘모두’, ‘다’를 사용하여 해당 명사를 양화할 수 있다. 특이한 것은 ‘都’는 병렬식을 양화한 경우가 일반명사(구)보다 더 많다는 것이다. ‘모두’ 또한 병렬식을 양화한 사례가 적지 않으며, ‘다’도 일정한 수량이 보인다.

둘째, 每+NP나 중첩형을 양화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都’만 양화할 수 있으며, 한국어 ‘모두’, ‘다’는 사례가 없다. 다음은 중국어 ‘都’가 사용된 예문이다.

- (10) a. 每个人都想去。
b. 개개인이 다 가고 싶다.

중국어에서 ‘每个人’이나 ‘个个’같은 양사의 중첩 형태는 임의적 대상을 의미한다. 예문 (10)a의 ‘每个人’은 b와 같이 한국어로 ‘개개인’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 외에도 '사람마다', '모든 사람', '각자', '사람들 모두', '모두들' 등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처럼 한국어에서 중국어 每+NP와 일대일로 직접 대응하는 표현이 없기에 통계 범위를 산정할 수 없다.

셋째, 양화구를 양화하는 경우이다. '都', '모두', '다'는 모두 양화구를 양화할 수 있다. 양화구에는 '수량NP', '所有NP', '一切NP', '这些NP' 등이 포함된다.¹⁰⁾ '都'는 전체 예문 270개 중 78개로 28.8%를, '모두'는 전체 191개 중에서 18개로 9.4%를, '다'는 172개 중에서 32개로 18.6%를 차지한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 (11) a. 这三个人都是律师。
 b. 두 작품은 모두 감옥이 배경이다.
 c. 두 작품은 다 감옥이 배경이다.
- (12) a. 所有人都走了。
 b. ?모든 인원이 모두 도착하였다.
 c. 모든 인원이 다 도착하였다.
- (13) a. 一切东西都拿来了。
 b. ?온 몸이 모두 쭈시다.
 c. 온 몸이 다 쭈시다.

예문(11)은 수량NP를 양화하는 경우로, '都', '모두', '다'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예문 (12)와 (13)은 각각 '所有NP'와 '一切NP'를 양화한 것이다. '都'와 '다'는 문장이 성립하지만, '모두'는 문장이 자연스럽지 않다. '모두'는 '所有NP'나 '一切NP'와는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시간사를 양화하는 경우이다. 여기에서 시간사라 함은 예를 들어, '两天', '一周'와 같이 시간의 길이를 나타내는 시량사를 의미한다. '都'는 전체 예문 270개 중에서 2개로 0.7%를, '다'는 전체 172개 중에서 5개로 2.9%를 차지한다. 이와 달리 '모두'는 관련 사례를 하나도 찾을 수 없었다. 이를 통해

10) 중국어 '所有NP', '一切NP'에 대응하는 한국어는 '모든', '온갖', '온' 등을 포함하였다.

‘都’와 ‘다’만 시간사와 양화할 수 있고, ‘모두’는 잘 양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¹⁾

- (14) a. 他一周都没来。
 b. ?한 달이 모두 지났다.
 c. 한 달이 다 지났다.

예문(14)를 보면 ‘都’, ‘모두’, ‘다’는 ‘一周’라는 시간사를 양화하고 있다. 이 경우 (14)a나 (14)c와 같이 ‘都’와 ‘다’가 출현한 문장은 성립하지만, b와 같이 ‘모두’가 사용된 문장은 어색하다. 이는 ‘都’와 ‘다’만 시간사를 양화할 수 있고, ‘모두’는 자연스럽게 양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섯째, 의문사로 임의적 대상을 양화하는 경우이다. ‘都’는 전체 예문 중에 2개로 0.7%¹²⁾를, ‘다’는 전체 예문 172개 중에서 7개로 9.7%를 차지한다. 한편 ‘모두’는 사례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 (15) a. 谁都不说话。
 b. ?누구나 모두 그렇게 생각해
 c.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해

- (16) a. 你都去过哪儿?
 b. ?너 모두 어디 가 봤어?
 c. ?너 다 어디 가 봤어?

예문(15)는 의문사 ‘谁’가 의문을 나타내는 의문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임의적 대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 경우에 ‘都’와 ‘다’를 사용한 문장만 성립하고, b와 같이 ‘모두’를 사용한 경우는 성립하지 않는다. ‘都’와 ‘다’만 의문사를

11) 본고에서 분석한 말뭉치가 갖는 수량적 제한을 보충하고 시간사와 ‘都’, ‘모두’, ‘다’의 공기 양상을 좀 더 알아보기 위하여 본고는 별도로 语料库在线을 추가로 검색하였다. 그 결과 ‘一周都’는 20개, ‘一年都’는 118개의 용례를 검색하였다.

12) 语料库在线에서 ‘谁都’는 모두 266개, ‘什么都’는 362개의 용례를 검색하였다.

양화할 수 있고, '모두'는 그러한 기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예문(16)은 '都'가 후행하는 의문사 '哪儿'를 양화한다. b나 c와 같이 한국어는 '모두'나 '다'를 사용하면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모두'나 '다'보다 의문사의 중첩 형식을 사용한 '너 어디어디 가봤어?'와 같이 표현이 더 일반적이고 자연스럽다.

여섯째, 동사를 양화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다'만 양화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는 전체 예문 172개 중에서 23개로 13.3%를 차지한다. 반면 '都'와 '모두'는 이러한 사례가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7) a. *这孩子都长了。
 b. 이 아이가 다 자랐다.
 c. ?이 아이가 모두 자랐다.

예문(17)b는 '다'가 선행 명사 '이 아이'를 양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랐다'라는 동사를 양화하고 있다. '都'가 쓰인 (17)a와 '모두'가 사용된 c는 자연스럽지 않다. 그러나 '都'가 동사를 양화하는 사례가 전혀 없는 것 아니다. 본고가 북경대학교 CCL말뭉치를 검색한 결과, '我都不知道怎么说才好.', '肉到嘴边他都不知道吃'와 같이 '都'가 '不知道怎么说才好', '不知道吃' 등의 동사(구)를 양화하는 예문도 일부 나타났다.

이상으로 '都', '모두', '다'가 각기 양화하는 성분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都는 ①~⑤ 즉, 명사(구), 每+NP, 양화구, 시간부사, 의문사는 양화하지만, ⑥동사는 양화하지 않는다. 한편, '모두'는 ① 명사(구), 병렬식, ④ 양화구를 양화할 수 있지만, 나머지 대상은 양화하는 경우가 없다. '다'는 '都'와 같이 '모두'보다 더욱 다양한 대상을 양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는 '都'가 양화하는 대상을 모두 양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⑥동사까지 양화할 수 있다.

2) 양화 대상의 특징 분석

앞 절에서는 ‘都’, ‘모두’, ‘다’가 각각 양화 대상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어서 본 절에서는 말뭉치의 상세한 분석을 통하여 그러한 양화 대상에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1) 집합성

앞 절에서 살펴본 예문에서 ‘都’, ‘모두’, ‘다’가 양화하는 대상은 대부분 복수에 속한다. 그러나 양화 대상 중에서 일부는 단수를 나타내기도 한다. 다음의 예문을 비교하여 보자.

- (18) a. 那些苹果都吃光了。
 b. 그 사과들을 모두 먹었다.
 c. 그 사과들을 다 먹었다.
- (19) a. 这本书我都看完了。
 b. 이 책을 나는 모두 보았다.
 c. 이 책을 나는 다 보았다.
- (20) a. *这粒米我都吃完了。
 b. *이 쌀 한 톨을 나는 모두 먹었다.
 c. *이 쌀 한 톨을 나는 다 먹었다.

예문(18)은 양화하는 대상인 ‘这些苹果’와 ‘그 사과들’은 복수이고, ‘都’, ‘모두’, ‘다’ 모두 문장이 성립한다. (19)와 (20)의 양화대상인 ‘这本书’와 ‘这粒米’는 단수이다. 그러나 (19)는 성립하지만, (20)은 성립하지 않는다. ‘这本书’를 자세히 살펴보면, 복수는 아니지만, 책은 한 쪽이나 한 장이라는 여러 하위 단위를 포함하고 있는 하나의 집합체로 볼 수 있다. 반면 ‘这粒米’는 다시 더 작은 하위 단위로 나눌 수 없는 즉, 집합성이 없는 대상에 속한다. 따라서 (20)과 같이 ‘都’, ‘모두’, ‘다’로 양화시킬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都’, ‘모두’,

'다'가 양화하는 대상은 반드시 '집합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말뭉치의 언어 실례들이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증명해 주고 있다.

(2) 집합체의 개체 부각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都', '모두', '다'의 양화 대상은 하나의 집합체이다. 하나의 집합체는 사용되는 문법형식에 따라 부각되는 방향이 서로 다를 수 있다. 즉 집합체의 개체를 부각할 수도 있고 집합체의 전체를 부각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每个干警', '成群的干警', '干警'은 모두 집합명사이다. 그러나 '每个'와 공기하면 집합체의 개체 한 명 한 명을 부각하게 되고, '成群'과 공기하면 집합체의 전체 집단을 부각하게 되는 것이다. '都', '모두', '다'도 양화 대상이 사용하는 형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에 따라 부각되는 면모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먼저 '都'와 '다'가 양화하는 대상은 어떤 방향을 부각시키는지 살펴보자.

[표1]에 따르면, '都'는 병렬식, 每+NP, 양화구, 임의적 지시를 나타내는 의문사와 모두 공기한다. 이들 형식은 모두 최소 단위 개체를 통하여 집합체를 반영한다. 이를 통해 집합체의 개체 하나 하나를 드러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말뭉치를 분석한 결과 '都'가 양화하는 명사(구)중에 84개가 병렬식이고, 나머진 80개는 대부분 복수형식, 各+NP 형식이다. 복수와 各+NP도 개체를 드러내는 형식에 속한다. 이처럼 '都'가 양화하는 대상은 일반적으로 집합체의 개체를 드러낼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다'가 양화하는 대상은 '都'와 유사하게 병렬식, 양화구, 임의적 지시를 나타내는 의문사이다. 이 성분들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집합체의 개체를 부각시키고 있다. 말뭉치에 나타난 '다'가 양화하는 일반명사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체 87개 중에서 77개가 가산명사이고, 나머지 10개는 가산명사는 아니지만, 여러 부분으로 구성된 하나의 집합체이거나 그 몇 단계의 과정을 포함하는 사건이다¹³⁾.

13) 예를 들어, '노고단'은 여러 부분으로 구성된 하나의 집합체에 해당하고, '가을걷이'는 몇 단계의 과정을 포함하는 사건에 해당한다.

이 역시 집합체의 개체를 드러나게 할 수 있는 형식으로 간주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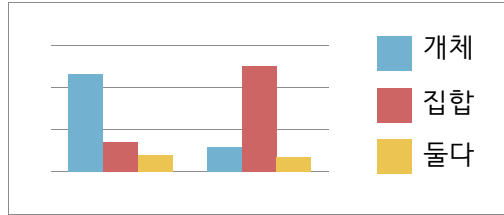
(3) 집합체의 전체 부각

이제 ‘모두’가 양화하는 대상은 어떤 방향을 부각시키는지 살펴보자. 역시 [표1]에 따르면, ‘모두’가 양화하는 대상은 일반명사, 병렬식, 양화구이다. 이 중에 병렬식과 양화구는 ‘모두’와 결합하게 되면 개체가 아니라 하나의 덩어리 전체로 인지하게 된다. 말뭉치를 살펴보면, 선행하는 병렬성분들이 ‘모두’를 통해서 하나의 숫자로 합쳐지는 경우가 많다. 즉, ‘모두’를 통하여 병렬한 성분들이 하나의 집합체가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일본이 3명, 중국이 2명, 인도가 2명, 그리고 파키스탄이 1명으로 모두 8명이다.’와 같다. 한편, ‘모두’가 양화하는 일반명사는 ‘다’가 결합하는 성분들과 달리 ‘생각, 조류, 취향, 생활, 고민’ 등과 같이 불가산명사인 경우가 더 많다. 이는 집합체의 개체가 아닌 덩어리 전체를 부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본고는 말뭉치 분석을 통해 언어 자료를 고찰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원어민 화자들이 ‘모두’와 ‘다’의 전체성 부각이나 개체성 부각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¹⁴⁾ 설문 항목은 예를 들어 ‘이 옷들이 다 만원이다.’가 만일 옷 하나하나가 만원씩이면 ‘개체’를 선택하고, 옷들을 모두 합쳐서 만원이면 ‘집합’을 선택하고, 두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하면 ‘둘 다’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설문결과¹⁵⁾에 따라 그 수치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대조결과를 얻었다.

14) 설문대상은 숭실대학교 2학년 중국어 과목의 수강생 41명이다. 그 중 모든 문제에 동일한 항목을 선택하여 설문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7명은 제외하였다.

15) 다음은 설문조사표와 항목별 응답수 누계치를 표시한 것이다.



[도표1] '모두'와 '다'의 집합성과 개체성 선택 비교

[도표1]에 따르면, '모두'는 양화 대상의 개체 해석을 선택한 것이 전체 340개 중 231개로 67.9%이고, 집합 해석을 선택한 것은 70개로 20.5%이며,

* 해당 예문의 의미를 고르세요.					
	예문	개체	집합	둘다	합계
1	이 옷들이 다 만원이다.	22	5	7	34
	이 옷들이 모두 만원이다.	2	27	5	34
2	왕씨의 아들들은 다 백평의 땅을 가지고 있다.	32	2	0	34
	왕씨의 아들들은 모두 백평의 땅을 가지고 있다.	10	23	1	34
3	이 책들이 다 만원이다.	22	4	8	34
	이 책들이 모두 만원이다.	3	27	4	34
4	식구들이 다 이 술을 마셨다.	22	8	4	34
	식구들이 모두 이 술을 마셨다.	4	28	2	34
5	너,나,그사람이 가지고 있던 토지를 다 몰수했다.	21	9	4	34
	너,나,그사람이 가지고 있던 토지를 모두 몰수했다.	5	15	4	34
6	우리들이 다 그 피아노를 가지고있다.	28	5	1	34
	우리들이 모두 그 피아노를 가지고있다.	17	15	2	34
7	미영의 얼굴이 다 망가졌다.	18	11	5	34
	미영의 얼굴이 모두 망가졌다.	5	26	3	34
8	학생들이 다 참가했다.	24	6	4	34
	학생들이 모두 참가했다.	3	28	3	34
9	마을이 다 약탈당했다.	15	16	3	34
	마을이 모두 약탈당했다.	3	26	5	34
10	애들이 다 그 요리를 먹고있어.	27	4	3	34
	애들이 모두 그 요리를 먹고있어.	5	24	5	34

둘 다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가 39개 11.4%로 집계되었다. 이와 반대로 ‘다’는 양화 대상의 개체 해석을 선택한 경우가 전체 340개 중 57개로 16.7% 뿐이고, 집합 해석을 선택한 경우가 249개로 73.2%이며, 둘 다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34개 10%이다. 이를 통해 한국인 화자는 ‘모두’의 양화대상으로 주로 집합적 해석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며, ‘다’는 ‘모두’와 정반대로 주로 개체적인 해석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모두’의 양화 대상은 주로 집합체의 전체를 부각하는 경향을 보이고, ‘都’와 ‘다’가 양화하는 대상은 주로 집합체의 개체를 부각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차이점이 설문을 통해서 보다 명확하게 드러났다.

3. 인지 모형의 차이와 그 영향

본 장에서는 인지언어학의 각도에서 ‘都’, ‘모두’, ‘다’의 인지모형을 살펴보고 이러한 인지모형의 차이를 통하여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들의 양화 대상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하고자 한다.

1) ‘都’, ‘모두’, ‘다’의 인지모형

인지언어학에서는 하나의 개념에 대하여 관찰자의 주안점과 관찰각도에 따라서 서로 다른 영상도식이나 인지모형이 형성될 수 있다고 본다. 이것은 통사적인 면에서 보았을 때 서로 다른 표현 형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都’, ‘모두’, ‘다’가 어떠한 인지모형을 나타내는 지 다음 문장을 통해서 살펴보자.

- (21) a. 这几本书都是一万块钱.
 b. 이 세 개가 모두 만원이다.
 c. 이 세 개가 다 만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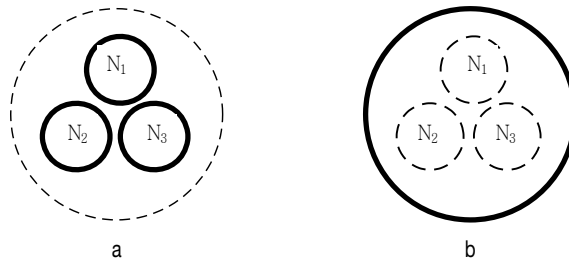
예문(21)의 '这几本书'와 '이 세 개'를 하나하나의 개체가 모인 집합체로 본다면 이는 'N1, N2, N3……Nn'로 나타낼 수 있다. 예문(21)a와 c에서 '都'와 '다'가 양화하는 대상은 개체 하나하나가 술어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진다. 즉, 다음과 같이 그 의미를 풀이할 수 있다.

- (21) a'. 这几本书都是一万块 = N₁一万块+……Nn一万块 = Nn万块
 c'. 이 세 개가 다 만원이다 = N₁만원+N₂만원+N₃만원=3만원

이와 달리 '모두'를 사용하는 b는 양화대상 하나하나가 술어와 직접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양화 대상의 집합체 전체가 술어와 관계를 맺는다. 이는 다음과 같이 그 의미를 풀이할 수 있다.

- (21) b'. 이 세 개가 모두 만원이다. = (N₁+N₂+N₃=만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都', '모두', '다'가 나타내는 서로 다른 의미는 다음과 같은 영상도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림1]

[그림1]은 동일한 사물에 대한 화자의 2가지 서로 다른 심리의 영상도식을 반영하고 있다. [그림1]a는 화자의 주안점이 집합체의 개체에 있고, 개체의 각도에서 사물을 관찰하고 있다. 한편 [그림1]b는 화자의 주안점이 집합의 전체에 있고, 전체의 각도에서 사물을 관찰하는 것이다. [그림1]a는 (21)a', c'와

대응하고, [그림1]b는 (21)b'와 대응한다. 이처럼 ‘都’와 ‘다’는 사물을 인지할 때 ‘개체 파악’이라는 인지 방식을 주로 취하고, ‘모두’는 ‘전체 파악’이라는 방식을 주로 취할 수 있다. 다음의 예문을 좀 더 살펴보자.

- (22) a. 他们各自都不一样。
 b. 그들은 각자가 다 다르다.
 c. ?그들은 각자가 모두 다르다.
- (23) a. 谁都想去。
 b. 누구나 다 가고 싶다.
 c. ?누구나 모두 가고 싶다.
- (24) a. 什么都吃。
 b. 아무거나 다 먹는다.
 c. ?아무거나 모두 먹는다.

예문(22)는 ‘그들’의 개체가 서로 각각 다르다는 의미, 즉 집합체의 개체를 부각시키고, 예문(23)과 (24)는 의문사 ‘谁’와 ‘什么’가 사람이나 사물의 최소 단위를 통하여 그 집합체의 구성원이 하나도 빠짐없이 술어의 성질이나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 집합체의 개체를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都’와 ‘다’를 사용하는 (22)a~(24)a와 (22)c~(24)c는 성립하고, ‘모두’를 사용하는 (22)b~(24)b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都’와 ‘다’는 사물의 개체에 주목하는 ‘개체 인지’라는 방식을, ‘모두’는 사물의 전체를 주목하는 ‘전체 인지’라는 인지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으로 사물 자체에 대한 인지방식이라는 각도에서 ‘都’, ‘모두’, ‘다’를 관찰하였다. 이제 사물의 움직임 즉, 운동이라는 각도에서 이들 세 가지의 인지방식을 비교해 보도록 하자. Langacker(1991:210,217)는 사물의 움직임에 대해 ‘연속적 주사(Sequential scanning)’와 ‘일괄적 주사(summary scanning)’라는 2가지 파악 방식이 있다고 하였다. ‘연속적 주사’는 영화를 보는 것과 같이 한 상태가 끝나면 다른 상태가 이어서 시작하는 것이고, ‘일괄적 주사’는

사진을 보는 것과 같이 새로운 상태나 오래된 상태를 하나의 전체로 인지하는 것이다. '都', '모두', '다'는 이 중에서 각각 어떤 방식을 취하고 있는지 다음 예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 (25) a. 路上的车都停了下来。
 b. 길에 차들이 모두 멈추었다.
 c. 길에 차들이 다 멈추었다.
- (26) a. 我这一周都在工作。
 b. 나는 이번 주 내내 모두 일하고 있다.
 c. 나는 이번 주 내내 다 일하고 있다.

예문(25)a와 (26)c는 길에 있는 차들이 한 대 한 대 점차적으로 멈추는 것을 나타낸다. 차를 멈추는 이 사건은 시간상에 연속성이 있지만, 사건과 사건 사이에는 불연속성이라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연속적인 주사'에 속한다. (25)b는 차가 한 대 한 대 멈추는 과정은 보이지 않고, 길에 멈추어져 있는 모든 차들을 보거나 모든 차들이 갑자기 한꺼번에 멈추는 상황에서 발화할 수 있다. 여기에서 차가 멈추는 사건은 시간상에 연속성이 없고 사건의 모든 구성 성분들이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발생한다. 이것은 '일괄적인 주사'에 속한다. 예문을 통해 '都'와 '다'는 '연속적 주사' 방식으로 사물의 움직임을 인지하고, '모두'는 '일괄적 주사' 방식으로 사물의 움직임을 인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인지방식은 '都', '모두', '다'를 사용함에 있어서 일정한 영향을 준다. 특히 '都'와 '다'는 명사만 양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작과정인 술어도 양화할 수 있게 된다. '모두'는 아직까지 술어를 양화할 수 없다. 다음의 예문을 좀 더 살펴보자.

- (27) a. 我都不知道怎么说才好。¹⁶⁾

16) 예문 27)의 '都'는 일반 문법책에서는 '已经'의 의미로 해석하지만, 본고는 이를 문법화의 각도에서 '已经'의 의미라기보다는 전칭양화사로 기능한다고 본다.

- b. 모두 늙었다.
- c. 난 다 늙었다.

(27)a는 ‘都’가 술어를 지향하여 문장의 전제가 되는 ‘어떻게 말하지 안다(知道怎么说)’에서 ‘어떻게 말하지 모른다(不知道怎么说)’라는 하나의 과정을 양화하고 있다. ‘어떻게 말하지 안다’에서 ‘어떻게 말하지 모른다’는 것은 일종의 심리과정으로 볼 수 있다. (27)b와 c의 통사 구조는 같다. 그러나 양화하는 대상은 서로 다르다. (27)b의 ‘모두’는 문장에 나타나지 않은 명사, 예를 들어 ‘그들’ 또는 ‘우리들’ 등을 양화하지만, c의 ‘다’는 술어 ‘늙었다’를 양화하고 있다. 다시 말해 (27)b는 여러 사람이 같은 시점에서 똑같이 늙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c는 한 사람이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점차 늙었다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27)b의 ‘모두’는 ‘일괄적 주사’ 방식과 대응하고, a와 c의 ‘都’와 ‘다’는 ‘연속적 주사’ 방식과 대응하는 것이다. ‘다’의 이러한 인지방식 때문에 명사 개체 하나하나를 양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작과정도 양화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일종의 경향성일 뿐이며, 이들의 인지방식을 절대적으로 양분할 수는 없다. ‘모두’는 명사를 양화할 때 동작이 점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인 화자 중에는 ‘기숙사의 불이 모두 꺼졌다.’라는 사건을 점차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모두’의 ‘일괄적 주사’라는 인지방식에 따르면 성립할 수 없지만 일부 한국인 화자는 이를 연속적 주사로 판단하기도 한다. ‘모두’도 일정 시간이 흐른 뒤에 언어사용의 변화와 더불어 어찌면 ‘都’나 ‘다’처럼 술어를 양화하는 기능을 갖게 될지도 모른다는 가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본고는 ‘都’, ‘모두’, ‘다’의 인지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都’와 ‘다’는 사물의 개체를 부각시키며 연속적인 주사 방식으로 인지하고, ‘모두’는 사물의 전체를 부각시키며 일괄적인 주사 방식으로 인지한다.

2) 인지모형의 영향

본고는 2장에서 ‘都’, ‘모두’, ‘다’의 양화대상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았으며 앞 절에서 이들의 서로 다른 인지모형도 비교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지모형이 이들의 양화대상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좀 더 살펴보자.

우선 ‘모두’는 일반명사구, 병렬식, 양화구만 양화하고, ‘都’와 ‘다’는 이뿐 아니라 시간부사, 任指을 나타내는 의문사와 동사를 양화하기도 한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 (28) a. 家里人都喝了这个酒。
 b. 식구들이 모두 이 술을 마셨다.
 c. 식구들이 다 이 술을 마셨다.
- (29) a. 你、我、他都有地产。
 b. 너, 나, 그 사람이 모두 토지를 가지고 있다.
 c. 너, 나, 그 사람이 다 토지를 가지고 있다.
- (30) a. 这些书我都买了。
 b. 이 책들을 나는 모두 샀다.
 c. 이 책들을 나는 다 샀다.
- (31) a. 他这一个月都没来。
 b. ?그는 한 달 내내 모두 오지 않았다.
 c. 그는 한 달 내내 다 오지 않았다.
- (32) a. 谁都行。
 b. ?누구나 모두 괜찮다.
 c. 누구나 다 괜찮다.

예문(28)~(30)의 양화대상은 각각 일반명사구, 병렬식, 양화구에 해당한다. ‘都’, ‘모두’, ‘다’는 모두 이들과 자연스럽게 공기한다. 그러나 이들의 인지모

형에 따라 비록 양화하는 대상은 같지만 양화하는 방식은 서로 다르다. ‘都’나 ‘다’와 공기할 때 ‘家里人’, ‘你, 我, 他’, ‘这些书’는 모두 개체 하나하나가 술어의 상태나 성질을 가지게 된다. 한편 ‘모두’와 공기할 때는 집합체의 전체가 술어와 관계를 맺는다. 예문(31)~(32)의 양화대상은 시간부사와 의문사를 이용한 임의적 지시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 ‘都’와 ‘다’를 사용한 문장은 성립하지만, ‘모두’를 사용한 문장은 성립하지 않는다. 본고는 이러한 이유가 바로 ‘都’, ‘모두’, ‘다’의 인지모형이 서로 다르기 때문으로 본다. ‘都’와 ‘다’는 주로 개체를 부각시키며 연속적 주사 방식으로 사물을 인지한다. 이런 방식은 개체를 부각시키는 ‘谁’와 같은 의문사나 동사와 함께 동작의 과정을 나타내는 여러 시점으로 구성된 시간의 길이를 나타내는 ‘这一周’, ‘这一个月’와 같은 시간사와 부합한다. 반면 ‘모두’는 주로 전체를 부각시키며 일괄적 주사 방식으로 사물을 인지하기 때문에 개체를 부각시키는 의문사나 동사와 함께 동작 과정을 나타내는 시량사와 결합할 때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都’, ‘모두’, ‘다’의 양화 대상이 서로 다른 이유는 이들의 인지방식이 서로 다른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4. 나가는 말

본고는 ‘都’, ‘모두’, ‘다’의 양화 대상의 차이와 그 인지 모형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고는 우선 이들이 양화하는 대상의 차이와 특징을 살펴본 뒤에 인지언어학의 ‘개체 인지’와 ‘전체 인지’, ‘연속적 주사’와 ‘일괄적 주사’라는 인지모형을 이용하여 이들의 양화 대상이 서로 다른 이유를 설명하였다.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두’는 명사(구), 병렬식, 양화구만 양화하고, ‘都’와 ‘다’는 명사(구), 병렬식, 양화구뿐만 아니라 每+NP, 시간부사, 임의적 지시를 나타내는 의문사와 동사도 양화한다. ‘都’, ‘모두’, ‘다’의 양화 대상은 모두 집합성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 '都'와 '다'는 양화 대상의 집합체 개체를 부각시키고, '모두'는 양화 대상의 집합체 전체를 부각시킨다.

둘째, '都', '다'는 사물을 인식할 때 주로 사물의 개체에 주목하며 연속적인 주사 방식을 취한다. 이와 달리 '모두'는 주로 사물의 전체에 주목하며 일괄적인 주사 방식을 취한다.

이처럼 '都', '모두', '다'의 양화 대상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이들이 서로 다른 인지 방식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參考文獻

- 김현주·정연주(2011), 「양화사 ‘다’의 형성과 의미 확장」, 『Journal of Korean Culture』 16
- 엄정호(1996), 「전칭 양화 부사의 의미」, 『배달말』 제21호, 배달말학회
- 최재희(2005), 「한국어 전칭양화사 구문의 구조와 의미 해석」, 『한글』 267
- 劉偉(2013), 「範圍副詞‘都’与‘全’的差异及其認知理据」, 『중국어문학』 제71집
- 呂叔湘主編(2001), 『現代漢語八百詞』, 北京, 商務印書館
- 毛海燕(2006), 「漢韓語中全稱量詞的對比」, 『중국어문학논집』 제 41호
- 詹衛東(2004), 「範圍副詞‘都’的語義指向分析」, 『漢語學報』 2004年 第一期
- 『中韓辭典』(2000), 高大民族文化研究所 中國語大辭典編撰室 高大民族文化研究院
- 『現代漢語八百詞』(2004), 呂叔湘 主編, 商務印書館

Abstract

A Contrastive study on Cognitive Models in Chinese '都' and Korean '모두/다'

Shin, Me-gyeong · Liu, Wei

This paper intends to interpret the syntactic differences and theoretical constraint conditions between the scope adverb 'dou(都)' and '모두/다'. To understand the syntactic differences, I investigated the objects and their features each adverb oriented. Through the linguistic concepts of cognitive model, like 'individual cognition', 'whole cognition', 'sequential scanning', and 'summary scanning', I tried to explain the syntactical and distributional differences two adverbs oriented.

Key words : scope adverb, individual cognition, whole cognition, sequential scanning, summary scanning

투 고 일 : 2015. 9. 10. / 심 사 일 : 2015. 9. 15.~ 2015. 10. 15. / 게재확정일 : 2015. 10. 16.